

제4강 좋은 문장과 나쁜문장 II

(1교시)

※ 강의 전체의 학습목표

문장을 쓰면서 흔히 겪게 되는 실수들을 살펴보고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을 알아보자.

▲ 문장의 오류

가. 수식어와 피수식어를 가깝게

- 더 이상 아름다운 방향은 없다
- 아름다운 고향 하늘을 생각한다
- 아버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 절대 비밀보장, 절대 다른 차 출입금지,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나. 높임법의 오류

- 선생님, 집이 크시네요!
-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아버지께서 텔레비전을 보시고 계신다

다. 의미 겹침

- 나는 약 보름 가량 제주도에 가 있었다
- 드디어 집을 계약을 맺었다
- 소설가의 대략 절반쯤은 백수다
- 원고를 많이 투고해 주세요

라. 과장된 표현

- 그러나 지쳐버린 내 다리는 밀려오는 잠의 숨결에 그만 요절해 버렸다

마. 영어, 일어 직역투

ㄱ. 영어 직역투

- 강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강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 관세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 관세를 면제해 준다, 관세면제 혜택을 준다
-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력이 요구된다

-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력이 필요하다
- 소설을 쓰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상상력이 필요하다
-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 방금까지 그 책을 **읽었었다**
 - 방금까지 그 책을 읽었다

ㄴ. 일어 직역투

-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까
 -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 법집행**에**의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 법집행의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 그것이 소설**으로서**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 그것이 소설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 좋은 문장의 필수 조건

<윌리엄 와트의 10가지 요건>

- **충실성**
 - 글의 내용은 알차고 밀도 있어야 한다.
- **독창성**
 - 글쓴이의 경험과 지식, 상상력을 그의 인성에 작용시켜 표현하여야 한다.
- **정직성**
 - 자신의 독창적인 사고를 쓴 글인지 타인의 글을 인용한 것인지를 밝히는 태도
- **성실성**
 - 자신의 글을 정성스럽게 쓰는 태도
- **명료성**
 - 문장이 지닌 '선명한 뜻'
- **경제성**
 -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말만 쓰는 것
- **정확성**
 - 적절한 어휘로 어법과 문맥에 맞도록 쓰는 태도
- **타당성**
 - 문장을 시점, 독자, 목적 등에 맞도록 쓰는 것
- **일관성**
 - 일관성은 글의 시점, 난해도, 형식적 요건, 내용 등이 일률적인 것
- **자연성**
 - 문장의 흐름이 순탄하고 동시에 문맥에 어긋나는 어구가 없이 이해하기 편한 것

(2교시)

▲ 나쁜 문장도 좋은 문장의 필수 조건

가. 문법에 맞아야 좋은 문장?

「입 안에 침이 가득하다. 양볼 안쪽과 혀 밑에서 새콤한 침이 솟아난다. 평소에도 침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침이 목으로 넘어갈랑말랑 할 때마다 귀에서 종이 구겨지는 소리가 났던가. 영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오수연 「여름방학」에서)

「놈을 고르지만 선뜻 눈에 들어오는 놈이 없다.」

(백가흠 「광어」에서)

→ 위의 두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를 삽입해 보면 오히려 더 어색한 문장이 된다.

「영수는 입 안에 침이 가득하다. 영수는 양볼 안쪽과 혀 밑에서 새콤한 침이 솟아난다. 평소에도 영수는 침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침이 목으로 넘어갈랑말랑 할 때마다 귀에서 종이 구겨지는 소리가 났던가. 영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놈을 고르지만 나는 선뜻 눈에 들어오는 놈이 없다.」

나. 명료하고 간결해야 좋은 문장?

「암기된 지하철의 노선이 나가고 피라미드와 황하, 그 태초의 문명에 대한 동경이 나가고, 에베레스트와 킬리만자로의 높이와 프라하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나이로비 같은 각국의 수도 이름과 미적분 2차방정식 같은 수학기공이 나가고 친구들의 핸드폰 번호와 그들의 목소리와 그것을 구분하는 내 청력의 기억이 나가고 입, 코, 눈, 귀, 항문의 열린 구멍으로 망설임 없이 나가는 것들에 대한 분노가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의 반복어법이 나가고 작가의 이름과 그것에 연결되는 책의 제목이 나가고 이를테면, 존 파울즈와 프랑스 중위의 여자, 다자이 오사무와 인간실격이 나가고,……」

(김도연 「어느 날, 나는」에서)

→반전이 가져다주는 신선함

「동네에서 상(喪)을 당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와 상복부터 챙기는 그를 낯선 조객들은 감쪽같이 상주로 알고는 했다. 절할 때 절하고 술상을 내오거나 잔을 권하며 국밥마다 가득가득 돼지고기를 얹어주는, 그러면서 조문객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다가 시간이 되면 금세 상여 앞에서 곡을 하는데, 망자를 잃은 것이 슬퍼서도 아니고 무슨 각별한 인척지간이어서 예를 다하느라 그러는 것도 아닌, 순전히 돼지고기 보급권을 독점해 어떻게 하면 한 마리라도 더 팔아볼까 싶어서 그러는 경우였던 것이다.」

(김형수 「나뭇잎 옷을 입은 거짓말쟁이」에서)

→인물을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도록 도와줌

* 결론 : 위에서 살펴 본 윌리엄 와트의 10가지 요건이 모두 들어맞아야 반드시 좋은

문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비문도 때론 오히려 더 좋은 문장이 될 수 있다.

▲ 문장 연습

★ 함께 풀어요!

에로영화 제작자가 되어 다음 제목들을 패러디해 보세요.

- 예) · 발리에서 생긴 일 → 발기해서 생긴 일
· 거미 숲 → 거기 숲
· 귀신이 산다 → 귀신이 썬다
· 인정사정 볼 것 없다 → 인정상 사정할 수 없다
· 올드보이 → 올누드보이

(직접 패러디해 보세요.)

- 목포는 항구다 → ()
- 태극기 휘날리며 → ()
- 4인용 식탁 → ()
- 살인의 추억 → ()
- 터미널 → ()
-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 ()
-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 ()
- 집으로 → ()
-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 ()

▲ 고전소설속의 말장난

ㄱ. 춘향전의 말장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 근처에 내려와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에게 은근히 거짓으로 묻는다. 춘향이가 남원부사의 수청을 들며 호의호식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 농부는 대뜸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한다.

“올라간 이 도령인지 ()인지 그 놈의 자식은 한번 간 후 소식이 없으니, 사람이 그렇고는 벼슬은커녕 내 좇도 못 되지.”

이제는 암행어사가 된 이 도령을 눈앞에 두고 버젓이 욕을 지껄이는 이 농부를 보라. 웃찾사와 개그 콘서트의 말장난의 기원을 따지자면 이 농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헌데 이 농부 뽀짝게 말장난 잘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춘향이의 어머니인 월매다. 거지꼴로 내려온 이몽룡을 두고 춘향이에게 하는 말 좀 들어보자.

“너의 서방인지 ()인지 걸인 하나가 내려왔다.”

(손홍규 「춘향전, 골계미의 정수」에서)

ㄴ. 이몽룡의 말장난

「“이 글을 못 읽겠도다. 글자가 다 뒤집혀 보이는구나. 하늘 천天이 큰 대大 되고 『사략』이 노략이 되고, 『시전』이 선전 되고, 『서전』이 판전 되고, 『통감』이 콧감 되고, 『논

어』가 붕어 되고 『맹자』가 탕자 되고 『주역』이 누역이 되어, 보이는 것이 다 춘향이라
.”」

(작자미상 「춘향전」에서)

* 춘향전의 말장난 중, 괄호 안의 단어는 **삼 도령**과 **남방**입니다.

★ 함께 풀어요!

다음 빈칸에 적당한 수식어를 넣은 뒤 아래 문장과 비교해 보세요.

「() 복숭아살 같은 햇별은 () 모래먼지며 꽃가루들이 제 몸에 달라붙도록 내버려둔 채
거실바닥으로 ()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 들끓하고 () 별을 흰 러닝셔츠 바람의 등
쪽으로 받으며, 아내와 나는 () 일요일자 조간신문을 나누어 읽고 있었다.」

·
·
·
·
·

「**무른** 복숭아살 같은 햇별은 **무수한** 모래먼지며 꽃가루들이 제 몸에 달라붙도록 내버려둔 채
거실바닥으로 **물결물결**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 들끓하고 **미지근한** 별을 흰 러닝셔츠 바람
의 등쪽으로 받으며, 아내와 나는 **말없이** 일요일자 조간신문을 나누어 읽고 있었다.」

(한강 「내 여자의 열매」에서)